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2호 소개

□ 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 소개된 '집회에서 스페인 국왕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표현의 자유의 의미' 사건은 집회에서 스페인 국왕 부부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는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럽인권협약 제10조의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정치적 비판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전개하였고, 특히 국가원수의 명예에 대한 강한 보호는 유럽인권협약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공무원 파업의 금지는 합헌' 사건은 공무원의 파업 금지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충분히 중요한 이익에 해당하며, 유럽인권협약 제11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도 부합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의 '제3의 성(性)을 신분기록에 적절히 표시할 권리' 사건은 오스트리아 신분관계법의 규정은 제3의 성적 정체성의 표시를 배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은 비록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형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더라도,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6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임금형평법 개정법조항의 평등권 위반 여부' 사건에서 여성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형평법을 개정하는 법조항이 평등권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불법적인 상황에 있는 외국인의 통행에 대한 일체의 도움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규정이 박애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사건은 불법적인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게 통행에 대한 일체의 도움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박애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과거 범죄사실을 일간지 웹사이트 내부 검색 엔진에 연동하는 것에 대한 잊힐 권리' 사건에서는 잊힐 권리의 의의와 정보의 자유와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으며, 칠레 헌법재판소의 '세 가지 경우에 자발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의 위헌성' 사건은 자발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사유와 의료진의 양심적 거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서 자발적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사유를 규정한 법안에 대하여 의회의 소수파가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국가제창에 관한 직무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의 합헌성' 사건은 국기를 향해 기립하여 국가를 제창하라는 직무명령을 위반한 점을 이유로 교직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남미의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와 아프리카의 적도기니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사법관위원회가 지명합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8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멕시코 통신원 소식으로 ‘멕시코에서의 임신 중절 합법화 논의’를 실었습니다.